

AUTHOR 홍반석

TITLE 종교개혁의 회고

IN 개혁주의

vol. 36 (Oct, 1969): 2-5

100 - 1100 1141

개혁세계

1969 10월호

(통권 36호)

차	레
●논단●	
종교개혁의 회고.....	홍 반 식 2
고려파에 인물이 있다.....	임 중 만 6
◇설교◇	
에수의 두가지 이름.....	오 중 덕 9
△성경연구△	
성경 교리 문답설.....	신 현 국 10
△수필△	
어느 천사의 이야기.....	심 군 식 13
꿈을 잡는 작업.....	김 남 식 16
◎인생노트◎	
33세 가을.....	백 성 호 18
설교 대회 후감.....	임 중 만 19
◎뉴스◎	
개혁세계 소식.....	21
◎현금통계◎	
전국 주교 주일 현금 내역.....	25
선학교 부담금 현황표.....	26

개혁세계사 발행

◇논단◇

◇종교개혁의 회고!◇

홍 반 식

주후 6세기 말엽, 그레고리 1세의 즉위로 부터 양성화된 로마교의 성장은 로마 대제국의 정권을 타고 파죽지세로 뻗어나가 그후 100년 동안 거의 전 구타타를 지배해 버렸다. 16세기 종교 개혁의 불꽃이 전 세계를 비취기 전 잉국의 위크리프, 보헤미아의 히쓰, 그리고 북 이태리의 람도 파 등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교의 찬탈에 싸여져 갔다.

16세기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대담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기 시작한 때를 전후하여 불란서의 유구노파등 많은 개혁주의 신도들이 전 구타타에서 로마교의 비 인도적인 학살에 희생이 되어 갔다. 그러나 스위스의 제네바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교의 칼이 미치지 못하였고 구타타 각지에서 온건하여 온 개혁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종교 개혁 운동의 온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온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종교 개혁의 거인이 바로 요한 칼빈 인 것이다.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불란서 노용(NoYoN)에서 출생하였다. 주지사 요 범장의 공녀로 있던 그의 아버지는 칼빈으로 하여금 자기의 뒤를 이어 범장봉사에 종성을 나 히도부 희망하였다. 칼빈은 어려서 부터 공부에 비집하였으나 Paris, Orleans, Bourges등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 할 때 에라스무스(Erasmus)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중 그의 마음에 복음적 신앙은 싹트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는 루터 설교집을 읽고 다시 로마교회와 개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복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 자처에서 거저는 종교개혁 운동의 자극을 받아 마침내 로마교회 봉사를 위한 공부를 포기하고 법학으로 전과하여 대학 공부를 마쳤다.

개혁주의 신앙을 갖춘 칼빈이 그 비범한 지력으로 순복음 운동을 시작 하여 불란서에서는 정당의 위협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1534년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해 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의 성 피에르(St. Pierre)

성당에서 설교하면서 제네바 신학교를 세워 개혁사업에 착실한 기반을 닦게 된 것이다. 이때 칼빈을 받들러 함께 수고한 개혁자들은 Beza, Farel, Knox 등이었다.

1. 종교개혁의 근거지

칼빈의 우수한 지적활동은 제네바로 하여금 전 세계 종교개혁의 화약고로 만들었으며 전 구라파의 세계는 이 제네바에서 퍼지는 폭발의 불길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가냘프게 시작된 종교개혁을 조직화 하였고 개혁 교회가 걸어가야 할 영구적인 길을 개척한 것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그의 명작이요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된 「기독교 강요(Institute of the Christian Church)」를 완성했다. 칼빈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생전에 50여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고 이 저서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주의 개혁신앙에 근본적인 지침을 보여준다.

칼빈주의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전 구라파에 퍼지기 시작하여 불란서, 스코트랜드, 화란, 등지에서 신교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독일과 영국의 신교운동에도 큰 감화를 끼쳤다. 칼빈은 성경적 복음운동이 전 구라파를 불태우게 되며 로마교의 박해도 쉬지 않고 격렬하여져서 불란서에서도 말할 수 없는 수의유그노파(Huguenotes)의 학살이 있게 되고 그 밖에 구라파 전역에서 로마교의 학살이 심해져서 이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위하여 미국 신대륙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2. 칼빈 강당

제네바의 성 필레 성당 옆에는 현재 800여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 강당이요 종교 개혁의 온상이었다. 구라파 전역에서 로마교의 박해를 피하여 수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든 까닭은 제네바가 로마교의 칼이 미치지 못하는 개혁자들의 안식처란 이유도 있었겠으나 보다도 죽은 로마교의 종교 의식에서 얻어 볼 수 없었던 생명력 있는 강의 즉 칼빈을 위시하여 메사, 파렐, 낙스등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 강당은 중수되어 1950년 6월 1일 국제 종교 개혁 기념 건물로 헌당되었으며 그 앞에는

지금도 칼빈이 사용하던 강판과 100년 된 의자가 있다. 이곳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모든 교회에 발상지로서 길기 보존될 것이요, 예배와 학회 행사의 센터가 되어 있다. 미화 1만 6천불을 드려 중수된 이 강당을 헌당할 때 그 중수 위원회의 위원장이요, 시카고 제4 장로교회 목사 앤더슨(Harrison Roy Anderson) 박사는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장군의 축하 메시지를 소개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략 이러했다.

“나는 귀하가 역사적인 요한 칼빈 선생 기념강당 재봉헌 예배에 참가하리 감히 있어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동료 신자인 나의 심심한 축의를 전할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앤더슨 박사는 자기의 봉헌사에서 제수하여 말하기를 “우리 신앙의 조부들은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7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였읍니다. 거기에서 칼빈과 메사는 가르쳤고, 낙스와 다른 개혁자들이 설교하였읍니다. 이곳에서 양성을 받은 중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들을 개혁하여 국가를 바로 잡았던 것임이구 그러분 다시 한번 맹구하시요. 이 작은 장소가 우리들의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끼쳤는가? 영국의 John Locke는 유그노파의 제자였고 미국 헌법을 초안한 John Witherspoon의 문하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 장로교와 개혁교회,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이 작은 장소의 혜택을 얼마나 입었는가 생각해 보시오.”

3. 20세기 종교개혁의 온상

개혁자들이 제네바에서 흑암후에 광명(Post Tenebras Lux)이란 표어 아래 성령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이룩한지 400여년이 지난 20세기 오늘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장 풍부하게 유지해 온 화란제국의 개혁교단과 스코트랜드에서 시작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성장 발전한 장로교단의 대교회들은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앙에서 이탈되어 가고 있다. 세계 장로교의 최대교단이요 장로교의 심부로 자처하는 미국 연합 장로교회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포기하고 세 신앙 고백을 채택함으로써 개혁주의 신앙에서 멀어짐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간판을 가지는 군소교단들

의 일부가 아니라 저나라에서 겨우 종교개혁의 유산을 준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 토오저(A.W. Tozer) 박사는 20세기의 종교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역설하고 미국 교회의 타락을 탄식했다. “지금 미국
에 있어서 복음주의 교회란 민청을 가지는 기독교 역시 신약성경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교회에는 세속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는 영미를
읽고 예배를 잊어버렸다. 우리의 가정은 극장으로 화하고 우리의 찬미에
는 경진미가 없어졌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이 모양으로 50년만 더 계
속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의 행태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칼빈 시대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계
속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개혁사역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20세
기 종교 개혁의 온상은 어딘가? 오늘의 제네바는 16세기 종교개혁의 본
거지 였던 제네바가 아니다. 오늘의 스위스는 칼빈주의 개혁신앙에 너무
나 평담하다. 스위스 바-젤 대학은 배교의 심본인 반트 사상의 본 고
장이며 제네바에 세워진 개혁자들의 초좌상이나 칼빈의 유물은 이렇자
들의 관광대상이 될 정도이다.

오늘의 개혁사역은 스위스 제네바에 기대를 걸 수 없다. 16세기 종교
개혁의 유산을 길이 신앙키 위하여 세워졌던 많은 기관들은 우리는 마
라 볼 수 없게 되었다. 스코트랜드의 애틀비리,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미국을 개혁주의 신앙으로 불 태우던 프린스톤 신학교등 모두 개혁주의
신앙과는 상관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오늘의 개혁주의 운동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성경에 충실한 하나
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건대 한국 남단에 세워진 고려신학교! 그 모습은 상하고 초라하나
20세기 종교개혁 대열에서 낙오치 말기를 바란다.

◇논단◇

<고려파에 인물이 없다>

일 종 만

요즘 「고려파에 인물이 없다」라는 말
을 자주 듣는다.

그것도 타고마 아닌 교인의 말이오
보니 그 말 하는 사람도 인물이 아닌
이 분명하다.

아마 자기 스스로가 신통치 못하니 만
류남 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나는 고려파에 인물이 못됨을 잘 알
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고려파에 인물이 없다.
는 말을 할때 가만하 있을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고려파에 인물이 없다고
는 절대로 보지를 않기 때문이다.

원로 들만 인물이 아니라 소장 중에도
인물은 많다.

그러므로 아무개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지나친 말인것 같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장수 하셔야 한다.
오래 오래 교단의 영도자로 자리를 지
켜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을 어찌겠는가!

그러므로 후배들의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기뻐 하길 바라며 길고 자
라는 젊은이 들을 과소평가 하지 말기
를 바란다.

「아가 없으면 이몸이 이몸 대신한다」
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피차에 인물이 없다고 자
학적인 자세나 열등의식을 깨끗이 씻
어 버려야 한다.

그리고 소장들은 어른들이 물러 나
기를 결코 바라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성경은 「때」를 말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전도서3장)

실예를 들면 <모세>가 죽으니 <여
호수아>를 세웠으며 <엘니야>가 승
진하니 <엘니사>에게 영권을 주었으
며 무자격자 였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야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안했
는가!

그렇다면 교단의 영도자인 원로들이
엄연히 살아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세대교체를 부르짖음은 「에더켈」에
어긋난 일이오 전방진 일이며 비성경
적인 행동이 아닐수 없다.

세대교체도 <엘리>를 물러 치고
<삼으엘>을 세우듯이 교권이 부패했
을 때에 생각할 말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
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 성
경의 원리라고 본다면 어찌 감히 세대
교체란 세속적인 말을 함부로 내까릴
수 있을 손가!

“인물이다.”